

제44차 녹색기후기금(GCF) 이사회 결과

-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최초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인증기구 승인

제44차 녹색기후기금(GCF*) 이사회가 3.25(수)부터 3.28(토)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.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사업을 포함해 18개의 신규 사업 승인과,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를 포함해 10개의 신규 인증기구 승인이 이루어졌다.

* **Green Climate Fund**: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'10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기후기금으로 본부는 인천 송도에 소재

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에티오피아 도시 기후 회복력 제고 사업은 동 기관의 최초 녹색기후기금 사업이다. 총 47백만불 규모로, 에티오피아의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산림복원, 습지 조성, 도시농업 확대 등 자연기반해법 확산 및 에티오피아 정부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.

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공동의장은 동 사업을 한-에티오피아 간 긍정적인 파트너십으로 평가하며, 동 사업을 통해 한국이 축적한 구체적인 경험과 지식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. 동 사업을 통해 해당국 인구의 약 1.6%가 직간접 수혜를 받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 또한 한국 기관들이 기후사업 형성 주체로서의 능력을 제고하고, 동 사업 및 후속 사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아시아산림협력기구도 이번 이사회에서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. 아시아 지역 산림분야의 정부간 기구로서 산림지 복원 등 기구의 특화된 역량을 향후 구체적 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킬 전망이다.

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인증기구 획득으로 한국은 총 4개*의 인증기구를 보유하게 되었다.

* 산업은행, 한국국제협력단, SK 증권, 아시아산림협력기구

우리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5기 이사진(‘25~‘27년)이자 본부 유치국으로서 향후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국내 기후관련 기업과 기관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도익 (044-215-8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요한 (nicedaykyh@korea.kr)
			연구원	김보영 (bykim117@korea.kr)

